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7장 12-13절 말씀인데요,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모두 모은 후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열매가 맺힌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다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반역한 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민17:10). 오늘 17장의 말씀은 어제 읽은 16장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라를 비롯한 일단의 레위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도전하여 반역을 하다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신들도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 때문에 고라와 그 무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모으셨는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결하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들이 반역한 표징인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결함이 아닌 부정함의 상징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부정하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게 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뿐 이니라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정결해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에는 제사장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가장 효과적으로 정결하게 해주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부정을 씻는 물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여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이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 그리고 홍색 실을 함께 불 태웁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지중에라도 길가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 등에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지고 성전에 들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부정을 씻는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부정해진 사람에게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우슬초의 묶음으로 그 물을 찍어서 뿌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정한자를 정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번거롭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최대한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무덤들에 회를 칠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부지중에라도 시체와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다시 정결하게 되기까지 7일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결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정결예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속의 부정함보다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 부정하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무덤에 회를 칠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너희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마23:27).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되었지만, 히9:13-14 말씀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은 부정을 씻는 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 때는 부정을 씻는 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고 정결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장 부정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자신들의 내면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20장1절의 말씀은 이제 그 후 38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어제 우리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떠돌게 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이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누구라도 광야에서 물이 없이 지내게 된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물이 도무지 없는 사막한 가운데에서도 쓴 물이 단 물 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옷이 해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으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것에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위협은 아마도 죽음의 위협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간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혼이 사는 길인 정결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 앞에서 나에게 물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정결하지 않아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자신들이 죽는 지는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두 번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많아 솟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그들의 가축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런 다양한 해석을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한가지 원리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도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훌륭한 모세,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장본인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였으며 율법과 규

례들을 재판하고 실행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씀 드리면 율법을 단 한가지라도 범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듯 한가지를 어겨도 모두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모세가 구원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인도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갈3:24).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지키다 결국은 못 지켜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이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세상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 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

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감수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모두가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